

# GALLERY



설악의 여름, 1998.

### 화려한 원색 '꽃그림'으로 유명한 김종학 회고전

화면을 가득 메운 화려한 원색 '꽃그림'으로 유명한 김종학 화백의 회고전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는 추상미술이 유행하던 시절, 스스로 추상 미술을 버리고 구상미술을 택했고 백색의 모노크롬 회화가 대세를 이루던 시절 정반대로 화려한 원색을 사용해 그림을 그렸다.

처음엔 박서보, 윤명로, 김창열 등과 교류하며 앵포르멜(비정형) 작품을 그렸지만 1979년 설

악산으로 떠난 이후 작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설악 초기 작품들에는 여전히 어둡고 우울한 기운들이 남아 있다. 1979년작 '꽃밭' 같은 작품에서는 꽃을 그리긴 했지만 어두운 녹색을 주로 사용해 암울하고 쓸쓸한 정서가 느껴진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작품에서야 비로소 오늘날 친숙한 '김종학 표 꽃그림'을 찾을 수 있다. 붓질은 더욱 격렬해졌고 화면에는 화려한 원색의 꽃이 빈틈없이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는 화가의 전(全) 시기 화업을 정리한다는 의도에서 일부러 잘 알려진 '꽃그림'을 배제

하고 1960~70년대 추상화 시절의 작품을 비롯해 작가의 시기별 작업 특성을 살필 수 있는 작품들, 그중에서도 대작 위주의 작품들이 주로 출품됐다.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봄과 여름의 설악산 풍경 그림 외에 흔히 접하기 쉽지 않은 가을산과 겨울산의 풍경 그림도 여러 점 볼 수 있다.

전시 6월 26일까지  
관람료 3천 원  
문의 02-2188-6000

# GALLERY

### 실재와 실재가 아닌 것 사이의 관계 탐구, 백승우 전

전시 7월 31일까지  
관람료 3천 원  
문의 02-733-8945

2009년 제1회 일우사진상을 수상했던 백승우가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세븐 데이스' 연작은 일주일의 각 요일을 아침, 점심, 밤으로 나눠 21개의 제목을 미리 만든 뒤 사진을 찍고 마음대로 제목을 붙인 작업이다. 제목과 사진을 연결시키려는 관객의 생각을 뒤집는 작품이다.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작가가 모아온 사진 자료들이 바탕이 된 작업이다. 공장 안 기계 설비, 재건축 중인 건물을 담은 사진은 얼핏 평범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실제 모습이 아닌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용도가 다른 사물을 찍은 사진들을 교묘하게 이어 붙인 것임을 깨닫게 된다.

또 다른 아카이브 작업인 '메멘토' 연작도 흥미롭다. 작가는 미국 버룩 시장에서 산 5만여 장의 사진에서 2천700여 장을 고른 뒤 주변 인물 8명에게 사진 8장씩을 고르게 하고 원하는 제목을 붙이도록 했다.

원래 사진들은 과거의 어느 한 장면을 찍은 것들이지만 8명의 인물은 자기 나름대로 사진에 제목을 붙이고 이야기를 부여한다. 또 관객은 다시 제목을 보고 나름대로 사진에 다른 이야기를 덧붙인다.

사진이 실재를 재현하고 기록한다지만 사실은 사진이 얼마나 왜곡돼 전달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작업이다.

스타일은 달라졌지만 실재(Real)와 실재가 아닌 것(Unreal) 사이의 관계를 탐색해 왔던 큰 틀은 그대로다.

Archive Project #009.



### 플라토, 스페이스 스터디 전

전시 7월 10일까지  
관람료 3천 원  
문의 1577-7595

지난 2008년 5월 이후 문을 닫았던 서울 태평로 로댕갤러리가 전시장 이름을 '플라토'로 바꾸고 재개관전 '스페이스 스터디' 전을 열고 있다. 현대 미술작가 14명이 과거 로댕갤러리에 있던 플라토의 전시 공간을 재해석하는 전시다.

상설전시작인 로댕의 '지옥의 문'과 '깔레의 시민' 위로 원형으로 설치된 김수자의 384개 연등 작품을 지나면 하늘색 비탕에 알 수 없는 숫자들이 가득한 가로 15m 벽면과 만난다.

암호 같은 숫자들은 로댕갤러리가 처음 문을 열었던 1999년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사고와 관련된 숫자들로, 당시의 모습을 작품화했다.

사진작가 김도균은 플라토의 공간을 구석구석 탐색했다. 작가는 벽과 벽이 만나는 구석처럼 선과 면이 맞닿는 공간을 포착해 익숙했던 전시장을 낯설게 보여준다.

안규철과 정소영, 김무준은 미술 전시장의 전형인 '화이트 큐브'를 재해석한다. 정소영은 가로 2m, 세로 2m, 높이 2m의 실제 화이트 큐브 공간을 만든 뒤 이를 해체한 조각들을 전시하고, 김무준은 플라토를 비롯해 리움과 뉴욕 구겐하임, 뉴욕 현대미술관 등 유명 미술관의 외관을 실루엣만으로 단순화시킨다.

이밖에 이불과 박준범, 구동희, 김인숙, 노재운, 장성은, 김민애, 정재호가 참여해 과거 로댕갤러리에 있던 전시장의 역사와 장소성을 탐색한다.

김수자, 연꽃 : 제로지대, 2011.





# CINEMA



© Disney Enterprises, Inc. All rights reserved. 감독 롭 마샬 출연 조니 뎀, 페넬로페 크루즈, 제프리 러시 개봉일 5월 19일, 12세 관람가

## ‘캐리비안의 해적-낯선 조류’ 3D로 즐기는 잭 스패로우의 네 번째 모험

해적 선장 잭 스패로우(조니 뎀)는 영원한 젊음을 선사한다는 ‘젊음의 샘’을 찾으려 한다. 잭은 자신과 애증의 관계인 안젤리카(페넬로페 크루즈),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인 해적 검은 수염(이안 맥웨인)과 함께 항해를 한다. 하지만 젊음의 샘을 노리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잭과 앙숙인 바르보사(제프리 러시) 선장도 영국 왕의 명령을 받아 샘을 찾아오고 스페인 군대도 끼어든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다. ‘캐리비안의 해적-블랙 펄의 저주’(2003)와 ‘캐리비안의 해적-망자의 함’(2005),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2007) 등 세 편의 영화는 모두 26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크게 히트했다. ‘캐리비안의 해적-낯선 조류’는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해적들의 아슬아슬하고 신기한 모험을 장대한 규모로 보여준다. 이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주인공 잭 스패로우의 독특한 매력은 여전히 빛난다. 위기에 몰려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갖은 고비를 넘기며 천연덕스럽게 살아남는 잭의 활약은 대단하다. 엉성해 보면서도 신출귀몰한 액션을 보여주는데 액션 장면이 다소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든다. 잭과 안젤리카의 관계가 눈길을 끈다. 과거에 특별한 감정을 나눴던 두 사람이 재회한 것으로 설정해 극에 미묘한 분위기를 만들지만,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라는 장르를 해치지 않은 점이 칭찬할 만하다. 3D 촬영으로 만든 영화라 시각적인 즐거움은 더 커졌다. 1~3편에 나왔던 키이라 나이틀리와 올랜도 블룸이 빠진 대신 페넬로페 크루즈와 이안 맥웨인이 새로 합류했다.

# CINEMA

## NEW FILMS

### 1. 코파카바나

중년 여성 바부(이자벨 위페르)는 자유분방한 삶을 산다.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본 적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다. 딸 에스메랄다(몰리타 샤마)는 자신과 너무 다른 엄마가 못마땅하다. 애인과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에스메랄다는 엄마가 참피하다면서 자신의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통보한다. 충격을 받은 바부는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 바부는 프랑스를 떠나 벨기에에 가서 콘도 회원권 영업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한다. 이자벨 위페르의 관록 연기가 빛나는 작품이다. 위페르는 이전의 영화에서 자주 보여준 차갑고 이지적인 이미지를 벗고 자유분방하고 흥미로운 캐릭터를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듯 소화했다.

감독 마크 피루시 출연 이자벨 위페르, 몰리타 샤마 개봉일 5월 26일, 15세 관람가

### 3. 삼국지-명장 관우

중국 촉나라의 명장 관우가 조조를 떠나 주군인 유비에게 돌아가면서 5개의 관문을 돌파하는 ‘오관돌파’를 주소재로 삼은 영화다. 관우는 허비성 전투 후 유비의 가족과 함께 조조의 포로로 지내는 신세다. 관우는 한칼에 적장을 베는 신들린 듯한 전투력과 어려운 백성의 처지를 살피는 세심함으로 조조 진영에서도 존경받는다. 조조는 무예가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한 관우를 아껴 휘하에 두고 싶어 하지만, 관우는 도원결의를 맺은 유비를 저버릴 수 없다며 거절한다. 관우는 유비가 원소에게 의탁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조의 허락을 얻어 길을 떠난다. 하지만 조조의 부하들은 적으로 두기에 너무 두려운 관우를 제거하려고 손을 쓰고 관우는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결전을 치른다.

감독 마이자우후위, 장원창 출연 전쯔단, 장원 개봉일 5월 19일, 15세 관람가

### 2. 마이 원 앤 온리

14살에 버린 아이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온 앤(러네이 켈위거)은 뉴욕 최고의 재즈 밴드리더인 남편 덕에 풍족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앤은 남편의 바람기를 참지 못하고 10대인 두 아들을 데리고 충동적으로 집을 떠난다.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자식들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는 철부지 앤은 부자 남편감을 찾기만 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앤은 아들과 함께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많은 남자를 만난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해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하는 옛 애인부터 성질 사나운 육군 대령, 이미 결혼했는데도 앤에게 청혼하는 결혼 중독자까지 시원찮은 남자들뿐이다. 로드무비 형식으로 앤과 두 아들이 미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여정을 경쾌하게 그렸다.

감독 리처드 롱크레인 출연 러네이 켈위거, 로건 레먼, 케빈 베이컨 개봉일 5월 19일, 15세 관람가

### 4. 알라마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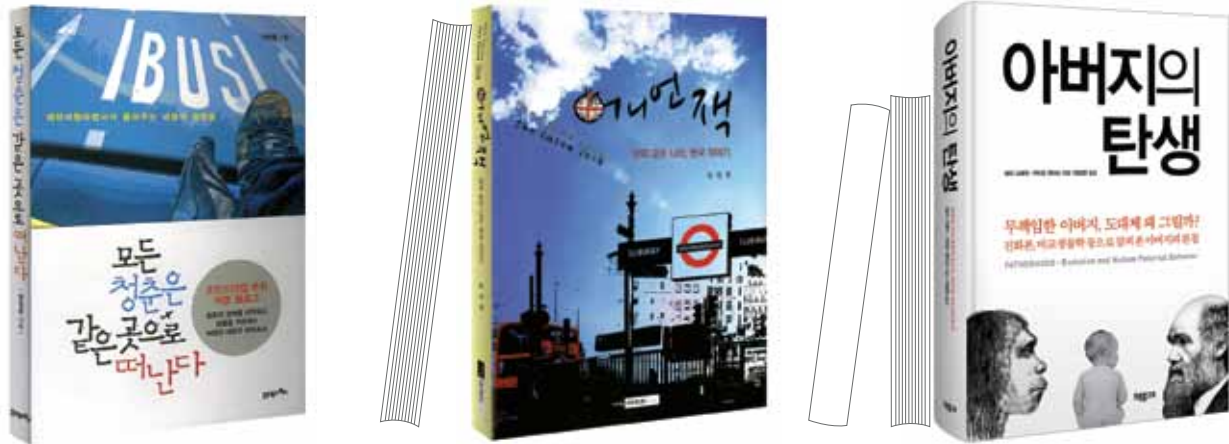
멕시코 바닷가 출신 호르헤(호르헤 마차도)와 이탈리아 로마 출신 로베르타(로베르타 팔롬비니). 자연을 떠나 살 수 없는 호르헤와 도시에서 살고 싶은 로베르타는 결국 헤어지기로 한다. 호르헤는 아들 나탄(나탄 마차도 팔롬비니)을 데리고 로마를 떠나 고향의 바닷가에 정착한다. 고기잡이, 야생의 새 길들이기, 청소하기 등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아들과 함께하지만 헤어져야 할 시간은 다가온다. ‘알라마르’는 다큐멘터리 같은 극영화다. 실제 주인공들의 사연을 그대로 보여주는지, 극적으로 과장돼 있는지 끝까지 모호함을 유지한다. 극적인 요소를 절제했기에 두 부자의 이별에 따른 아린 정서를 깊이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배고프면 고기 잡고, 심심하면 청소하는 자연생활이 더 마음에 다가올 법하다.

감독 페드로 곤잘레스 루비오 출연 호르헤 마차도, 나탄 마차도 팔롬비니 개봉일 5월 19일, 전체 관람가





BOOK



스스로를 위해 떠나는 청춘의 여행기

방향하고 부유하는 '젊음'과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여행'은 여러 면에서 닮았다. 한 곳에 정착하는 생활은 어울리지 않고,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술 한 실수도 훗날 웃음 짓게 하는 추억이 된다는 사실도 비슷하다. 인터넷에서 '쾌락여행마법사'라는 필명으로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저자는 여행이 정신적인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책'이라고 단언한다.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그는 여행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책에는 한 청년이 수년 동안 여행을 통해 슬픔을 다스리고 고독과 싸워 온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 에피소드는 떠남, 만남, 사랑, 나이, 치유, 회귀 등 6개의 주제로 묶여 있다. 저자는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삶은 여전히 험하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양정훈 지음/21세기북스/272쪽/1만3천 원

속살이 보이지 않는 나라, 영국의 흥미로운 이야기

"런던에 싫증이 난 사람은 인생에도 싫증이 난 것이다. 런던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시인 겸 평론가인 새뮤얼 존슨이 남긴 말이다. 이처럼 런던과 영국은 복잡다단한 면모를 지닌 곳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국을 '양파'에 비유하기도 한다. 웬만큼 친숙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 발견되는 탓이다. 이 책은 연합뉴스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여기자가 영국 런던 특파원으로 부임해 3년 동안 생활하면서 겪은 다양한 사건과 감정을 정리한 것이다. 명소와 레스토랑, 즐길 거리 등 여행 정보 위주로 구성된 가이드북과는 달리 영국 문화와 영국 사람들의 습성을 소개하고 있다. 영국 사람들은 쌀쌀맞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이고, 영국 음식이 형편없다는 생각은 오해일 뿐이라는 '진실'도 기록돼 있다. 또 시어머니, 두 딸과 함께 지내면서 느낀 여성 특파원으로서의 고충도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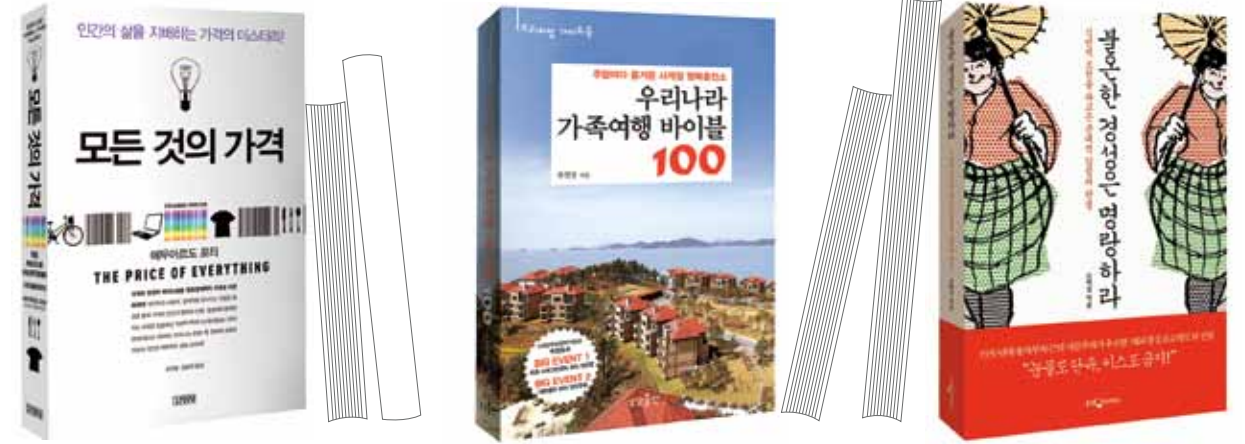
김진형 지음/기파랑/308쪽/1만4천500원

우리가 아버지에게 대해 몰랐던 것들

진화론과 비교생물학 등을 바탕으로 남성의 자녀 양육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들여다본 책이다. 암컷뿐 아니라 수컷 역시 자녀 양육에 깊이 관여하는 조류와 달리 자녀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수컷 포유류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대부분의 수컷 포유류들의 "새끼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사정하는 순간에 끝"나는데 다만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일부일처제와 함께 '아버지의 보살핌'을 독특한 특징으로 지니게 됐고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이 커지게 됐다. 아버지의 보살핌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맹수와 적대집단이 사실상 사라진 현대사회에서는 아버지의 물리적 역할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 책은 아버지의 역할과 영향부터 남성에게 있어서 양육과 삶의 조화, 남성에게 '아버지 되기'의 의미, 아버지 위상의 미래까지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피터 B. 그레이 외 지음, 한상연 옮김/초록물고기 432쪽/2만2천 원

BOOK



어느 곳이나 있는 '가격'의 비밀

저널리스트 출신의 저자는 "가격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며 유무형의 가격들이 어떻게 인간을 움직이는지, 가격이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났을 때 어떤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준다. 이 책에서는 상품과 노동뿐 아니라 생명, 신앙, 행복, 미래, 심지어 '공짜의 가격'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기령 '신앙의 가격'이란 이런 식이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성이 노동을 통해 버는 수입이 남성보다 적어서 종교에 투자해도 포기하는 소득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공짜는 그 자체로 매혹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소비를 결정하게 만들기도 한다.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가격'으로 지불하는 셈이다.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공짜'는 없다는 것, 그리고 가격이 우리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에두아르도 포터 지음, 손민중 · 김홍래 옮김/김영사/364쪽/1만4천 원

사계절이 행복해지는 주말여행

주말에 어디론가 길을 나서고 싶은데, 마땅히 떠오르는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국내 여행 백과사전이다. 한반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여행 서적을 내놓았던 저자가 계절별로 찾아가볼 만한 명소를 25곳씩 선정했다. 봄에는 매화와 동백 등 꽃이 화려하게 만발하는 장소로, 여름에는 피서지로 손색이 없는 섬과 계곡으로 안내한다. 또 가을에는 단풍이 든 호젓한 사색길, 겨울에는 설경이 고혹적인 순백의 세계로 발걸음을 이끈다. 각각의 장소에는 풍경이 절정을 맞이하는 여행의 적기가 표시돼 있다. 실용서답게 100곳의 여행지에는 1박 2일 나들이객을 위한 여행 코스, 가는 길, 맛집, 숙소 등이 수록돼 있다. 또 심심강 꽃구경 확실하게 즐기기, 거문오름 트레킹 주의사항 등 초행자는 모르는 정보도 있다. 이와 함께 봄 주꾸미와 여름 은어, 가을 전어, 겨울 굴 등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계절 별미도 확인할 수 있다.

유철상 지음/상상출판/432쪽/1만6천800원

조선총독부의 '경성 명량화 프로젝트'

1930년대 들어 갑작스럽게 널리 쓰이게 된 '명량'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흥미로운 방식으로 근대를 읽어낸 책이다. 그 이전까지 '명량'은 주로 '날씨가 흐린 데 없이 밝고 환함'이라는 뜻으로만 쓰였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성격이나 감정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금 '명량'의 반의어라면 '우울' 정도를 댈 수 있는데 1990년대 이전의 '명량'은 '불량', '불건전', '불결', '퇴폐' 등의 반의어로 쓰였다. 그 기원에는 조선총독부의 '도시 명량화'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1930년대 총독부는 도시가 단기간에 팽창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도시 명량화 정책을 폈다.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을 억압하고 체제순응적인 인간을 양성한다는 게 또 다른 목적이었다. 이 책에서는 '모범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총독부의 웃지 못할 '명량화 정책'과 근대 풍속도를 당시 신문 등을 통해 보여준다.

소래섭 지음/웅진지식하우스/296쪽/1만3천800원

## CONCERT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전국 투어 공연**  
 미국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이 6월 내한해 7월 초까지 전국 8개 도시를 돌며 공연한다.  
 '서머 콘서트(Summer Concert)'란 테마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윈스턴은 자신의 대표적인 앨범 '디셈버(December)'에 수록된 '썸스기빙(Thanksgiving)'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또 '오템(Autumn)', '포레스트(Forest)'를 비롯해 작년에 발매된 최신작 '러브 윌 컴(Love Will Come)'에 수록된 곡들도 연주한다. 아울러 피아노 못지않게 수준급의 연주 실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하모니카와 하와이의 전통

기타인 하와이안 슬랙 키 연주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6월 22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의정부, 이천, 과천, 논산, 울주를 거쳐 7월 5일 부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마무리된다. 서울에서는 6월 30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     |  |
|-----|--|
| 일 정 | 6월 30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이하 서울)                                       |
| 티 켓 | VIP석 12만 원, R석 9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 B석 3만 원, 휠체어 S석 7만 원, 휠체어 A석 5만 원 |
| 주 최 | 서울예술기획   |
| 문의  | 02-548-4480  |

### 케이윌, '가슴이 뚱다' 단독 공연

가수 케이윌(본명 김형수)이 공연 규모를 확대해 세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2009-2010년 1천500석 규모의 연세대 대강당 공연에서 2년 연속 매진을 기록한 그는 6월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3천 석 규모의 올림픽홀에서 '가슴이 뚱다'란 타이틀로 무대에 오른다.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슴이 뚱다'가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끌면서 팬들이 대거 늘어 공연 규모를 확대했다"며 "티켓 발매 전부터 팬클럽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반응이 뜨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연에서는 방송에서 선보이지 못한 다양한 선곡으로 케이윌의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
|-----|-----------------------------------|
| 일 정 | 6월 25일 오후 7시,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     |
| 티 켓 | VIP석 8만8천 원, R석 7만7천 원, S석 6만6천 원 |
| 주 최 | 스타쉽엔터테인먼트                         |
| 문의  | 02-541-7110                       |



**'피아노 록 대부' 벤 폴즈, 첫 내한 공연**  
 '피아노 록의 대부' 벤 폴즈(Ben Folds)가 6월 9일 오후 8시 서울 광장동 악스코리아에서 첫 내한 공연을 펼친다.  
 엘튼 존과 빌리 조엘의 영향을 받은 폴즈는 1994년 트리오 록그룹 벤 폴즈 파이브를 결성해 동명의 데뷔 앨범과 두 번째 앨범 '왓에버 앤 에버 에이멘(Whatever and Ever Amen)' 등을 통해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벤 폴즈 파이브는 '브릭(Brick)'과 '송 포 더 덤프 트(Songs for the Dumped)'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그룹 활동 중에도 꾸준히 솔로 프로젝트를 시

도해 왔던 그는 밴드가 해체된 뒤 2001년 앨범 '로킨 더 서버브스(Rockin' the Suburbs)'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발표한 앨범 '로니 애비뉴(Lonely Avenue)'는 BBC와 CNN, 타임 지 등으로부터 '2010년 최고의 앨범' 중 하나로 손꼽혔다. 이 앨범에는 영국의 유명 작가 닉 혼비가 가사를 쓰고 벤 폴즈가 곡을 붙인 곡이 수록됐다.

|     |                           |
|-----|---------------------------|
| 일 정 | 6월 9일 오후 8시, 서울 광장동 악스코리아 |
| 티 켓 | 9만9천 원                    |
| 주 최 | 프라이빗커브                    |
| 문의  | 02-563-0595               |

## CONCERT



**재즈의 거장 키스 자렛, 솔로 무대**  
 지난해 트리오로 내한했던 재즈의 거장 키스 자렛이 6월 2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솔로 공연을 한다.  
 세 살 때부터 피아노를 친 키스 자렛은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다 1960년대 초 재즈로 전향해 드러머 아트 블래키, 색소포니스트 찰스 로이드 등의 밴드에 발탁돼 연주자뿐 아니라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 말 전설적인 뮤지션 마일스 데이비스의 재즈 록 밴드에 합류하며 큰 전환점을 맞았고 이후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60장에 가까운 앨범 작업에 참여해 현존하는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로 불린다.  
 그의 솔로 공연은 뉴욕의 카네기홀과 런던의 로열페스티벌홀,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 베를린 필하모닉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 도쿄 메트로폴리탄 페스티벌홀 등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열려 많은 화제를 남겼다.

|     |  |
|-----|--|
| 일 정 | 6월 2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 티 켓 | VIP석 18만 원, R석 14만 원, S석 10만 원, A석 7만 원, B석 5만 원 |
| 주 최 | 세종문화회관, 씨앤엘뮤직, A & A                             |
| 문의  | 02-399-1114-6                                    |

**재즈 싱어송라이터 헤일리 로렌, 첫 내한 공연**  
 미국의 재즈 싱어송라이터 헤일리 로렌이 6월 21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첫 내한 공연을 한다.  
 헤일리 로렌은 2006년 '풀 서클(Full Circle)' 앨범으로 데뷔해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2009년 음악 산업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정하는 '저스트 플레이 포크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보컬 재즈 앨범' 상을 수상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한국 공연에서 '투 세이 굿바이(To

Say Goodbye)', '비욘드 더 시(Beyond the Sea)', '서머 타임(Summer Time)' 등 국내 팬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팝과 재즈 스탠더드 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     |                                      |
|-----|--------------------------------------|
| 일 정 | 6월 21일 오후 8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
| 티 켓 |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B석 1만5천 원 |
| 주 최 | 공연기획사 HJ                             |
| 문의  | 02-6352-6636                         |



**전설적인 재즈 베이시스트 론 카터 내한**  
 재즈계의 전설적인 베이시스트인 론 카터가 내한 공연을 한다.  
 이번에는 특히 재즈계의 손꼽히는 연주자들인 피아니스트 러셀 말론, 기타리스트 머글루 밀러와 함께 '골든 스트라이커 트리오(Golden Striker Trio)'로 내한해 6월 21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  
 론 카터는 재즈계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더블베이스 연주자로 꼽힌다. 1963년 마일스 데이비스 쿼텟에 합류해 허비 행콕과 웨인 쇼터, 토니 윌리엄스와 협연하는 등 무려 3천500여 장의 앨범 제작에 참여해 베이스를 연주했다.

정통재즈와 퓨전, 클래식까지 넘나드는 폭넓은 연주로 재즈계에서 존경받아 왔으며 국내에는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과 협연한 음반 '이정식 인 뉴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 내한 공연했다. 론 카터를 중심으로 2003년 결성된 '골든 스트라이커 트리오'는 그간 두 장의 앨범을 발매해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     |                                 |
|-----|---------------------------------|
| 일 정 | 6월 21일 오후 8시,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
| 티 켓 | R석 13만2천 원, S석 11만 원, A석 8만8천 원 |
| 주 최 | 서던스타엔터테인먼트                      |
| 문의  | 02-3143-5155                    |



## STAGE



### 386세대의 오늘, 8년 만에 돌아온 연극 '똥날'

2001년 초연돼 동아연극상, 대산문학상 등을 받은 연극 '똥날'이 8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다. 386세대가 견고한 제도권 사회에서 마모돼 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 매진 행렬을 이어갔던 화제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원조 출연진인 길해연, 홍성경, 서현철과 새 얼굴 황정민, 정승길 등 대학로의 연기파 배우가 총출동해 8년 전 호흡을 되살린다.

극 중 배경은 30대 중반인 지호-정숙 부부의 딸이 돌을 맞은 잔치날. 잔치 판에 모인 386세대 친구들은 전세금 수백만 원에 전전공공하고, 양육비 부담 때문에 벅속 아이를 지우거나, 돈으로 학위논문들을 매매하는 신세를 하나 둘씩 털어놓는다.

인생에서 꿈을 상실한 나이인 30대 중반의 보편성과 386세대라는 특수성이 맞물려 20대의 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현실과 타협해 가는 30대의 분열적 자화상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제목은 표기법상 '똥날'이 맞는 표현이지만 예스러운 느낌을 살리려 '똥날'로 했다.

대학로 창작 연극의 '산실' 역할을 해 온 극단 작은신화가 창단 25주년을 맞아 앙코르 공연으로 선보이는 무대다. 극작은 김명화, 연출은 최용훈이 맡았다.

**일 정** 6월 3일-7월 10일 월·수·목·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 6월 5일 오후 2시/6시, 6월 6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티 켓** R석 3만5천 원, S석 2만5천 원  
**문 의** 02-762-0010



### 주방은 세계의 축소판, 연극 '키친'

생선찜 담당 독일 청년, 디저트 전문 아일랜드 아가씨, 웨이트리스에게 치근대는 부주방장….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연극 '키친'이 국내 초연된다.

1959년 런던에서 초연된 후 전 세계 무대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영국 현대극의 대표작이지만 국내에서는 30명에 이르는 방대한 출연진과 주방 조리대를 그대로 재현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무대화된 적이 없었다.

국립극단은 지난해 재단법인화 한 이후 두 번째 정기 공연으로 '키친'을 공연한다.

원작자 아널드 웨스커는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극본을 썼으며 배우들에게 마음을 통해 실제로 요리하는 동작을 요구할 정도로 사실성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극본 서문을 통해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서로 사귀는 시간도 없이 잠시 머물다 간다. 우정과 사랑과 적대감은 생기자마자 재빨리 사라진다"면서 "나에게는 부엌이 세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는 중견 연출가 이병훈이 연출을 맡아 29명의 배우를 진두지휘하며 전쟁터와 같은 주방 풍경을 생생하게 구현해낸다.

**일 정** 6월 12일까지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월요일 공연 없음), 서울 명동예술극장  
**티 켓** 다솜석 5만 원,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문 의** 02-3279-2233

## CLASSIC

### 디토 페스티벌 2011 '봉주르 디토'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이끄는 여름 음악 축제 '디토 페스티벌'이 올해도 찾아온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페스티벌은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올해는 페스티벌 제목이 '봉주르 디토(Bonjour Ditto)'인 만큼 프랑스 음악을 주제로 꾸며진다. 드뷔시와 라벨, 포레 등 프랑스 클래식 음악을 오케스트라, 협주곡과 실내악, 독주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감상할 수 있다.

페스티벌의 호스트인 앙상블 디토, 2008년 롱티보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 바이올리니스트 한빈과 자니 리,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김태형, 프랑스 출신의 하프스트인 자비에르 드 매스트르, 올해 그래미 상에서 최우수 실내악 퍼포먼스 상을 받은 앙상블 파커 콰르텟 등 다양한 연주자들이 참여한다.

6월에는 자비에르 드 매스트르 리사이틀(23일), 디토 & 파커 콰르텟 듀오 리사이틀(25일), 파커 콰르텟 리사이틀(26일), 첼리스트 마이클 니컬러스 리사이틀(27일), 바이올리니스트 자니 리 리사이틀(28일)이 열린다.

7월에는 디토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디토가 꾸미는 '디토 올림팩'(2일), 라벨의 곡을 감상할 수 있는 '디스 이즈 라벨!'(2일), 임동혁과 신현수의 듀오 리사이틀(3일), 앙상블 디토 리사이틀(3일)이 준비돼 있다.

**일 정** 6월 23일-7월 3일, 서울 예술의전당·호암아트홀  
**티 켓** 공연마다 다름  
**문 의** 02-318-4301



### 마사아키 스즈키 & 바흐 솔리스텐 서울 'B단조 미사'

'고음악의 거장' 마사아키 스즈키가 한국의 앙상블 바흐 솔리스텐 서울과 함께 바흐의 'B단조 미사'를 6월 5일 서울 LG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마사아키 스즈키는 자타공인 바흐 전문가다. 그는 자신이 창단한 앙상블 바흐 콜레기움 재팬을 이끌고 1995년부터 스웨덴의 음반 레이블 BIS에서 바흐의 종교 칸타타 전곡을 녹음하고 있다.

그는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와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등 유럽의 유명 시대악기 앙상블로부터 정기적으로 초청 받아 지휘하고 있다.

더불어 브리튼과 하이든, 멘델스존, 모차르트, 스트라빈스키 등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현대 악기 오케스트라와도 연주하고 있다.

마사아키 스즈키와 함께 공연하는 바흐 솔리스텐 서울은 2005년 창단한 바로크 전문 앙상블이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이 앙상블뿐 아니라 바흐 콜레기움 재팬의 기악 연주자 9명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마사아키 스즈키는 최근 인터뷰에서 "B단조 미사"는 바흐의 모든 작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이 곡은 교회 음악의 전통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리에 대한 철저함과 작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바흐가 그의 삶을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 정** 6월 5일, 서울 LG아트센터  
**티 켓**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B석 2만 원  
**문 의** 02-2005-0114

